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22)

[제1독서] 2역대 24,18-22

[화답송] 시편 31(30),3ㄷㄹ-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
(◎ 6ㄱ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만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태 10,17-22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 충남 솔미에서 태어났다.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김제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집안이 몰락하였다.

김대건은 열여섯 살인 1836년 사제가 되고자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길을 떠났다. 1844년 부제품을 받은 그는 선교 사제의 입국을 돕고자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김가향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고국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 사제의 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다가 1846년 6월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5월 6일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를 시성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정하상 바오로와 함께 한국의 대표 성인으로 삼았다.

복음 묵상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유일한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순교는,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서 가장 숭고한 신앙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고, 그들의 숭고한 신앙의 증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순교자들은 분명 희망을 간직한 이들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순교자들을 기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지금 우리’입니다. 순교자를 현양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 맞고 피 흘리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흐드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순교자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렬히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고, 믿음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모든 이가 종종 일관성을 상실하는 죄를 짓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고결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 여정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으며, 하느님 백성과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약속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다윗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충실히 실현하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왕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579항 참조).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아버지 이사이의 양떼를 치던 베들레헴 주변의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의 막둥이로,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1사무 16,1-13 참조). 그는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람, 자연의 소리들, 태양 빛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로할 유일한 친구는 비파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혼자 비파를 연주하고, 자신의 하느님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릿매(새총)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목동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돌보고,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 백성을 돌보아야 했을 때에도, 양을 칠 때와 크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동의 모습이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착한 목자”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도둑의 행동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양들을 인도하시고, 양들 각각의 이름을 아십니다(요한 10,11-18 참조).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직업(목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언자 나단이 그의 심각한 죄에 대해 책망했을 때(2사무 12,1-15 참조), 다윗은 **자신이 나쁜 목자였고, 애지중지하는 유일한 양을 가진 이에게서 그 양을 약탈했고, 자신은 더 이상 겸손한 종이 아니라 권력에 찌들고 죽이며 약탈하는 약탈꾼**이라는 것을 즉각 이해합니다.

다윗의 소명에 내재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시인으로서의 영혼**입니다. 이 작은 관찰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된 사람들과 같이, 저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는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프는 항상 그와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 기쁨의 찬가를 불러 드리기 위해(2사무 6,16 참조), 다른 때는 슬픔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시편 51,3 참조).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실타래처럼 풀리는 일들 뒤에 있는 더 큰 신비를 포착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곧, 삶은 불시에 우리를 잡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와 음악, 감사와 찬미, 혹은 눈물과 간청을 불러 일으키는 놀라운 신비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시적 차원이 없을 때, 말하자면 시를 누락했을 때, 그의 영혼은 절뚝거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윗을 가리켜 **시편을 쓴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시편들은 그 시작 부분에 자주 이스라엘 왕과 그의 삶의 크고 작은 고귀한 사건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임무에 부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또 다른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왕을 선포하고 예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며, 다윗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자인 동시에 죄인**이었으며, 박해를 받았으나 박해자이기도 했으며,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종종 우리 삶에서 반대되는 특성이 있음을 봅니다. **삶의 드라마 안에서 모든 사람은 종종 일관성을 상실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일치를 가져오는 것, 곧 그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성자인 다윗은 기도합니다. 죄인인 다윗도 기도합니다. 박해받은 다윗은 기도합니다. 박해자인 다윗도 기도합니다. 희생자인 다윗은 기도합니다. 가해자인 다윗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결코 꺼지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나 슬픔의 소리를 취하는 목소리입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입니다. 단지 멜로디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모든 것, 곧 **기쁨과 죄, 고통과 사랑, 우정과 질병을 하느님과의 대화 안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당신(하느님)”께 드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독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인생에서 기도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모든 사람 안에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고결함을 선사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때문에 고결합니다. 가해자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기도 덕분에 그에게 고결함이 다시 되 돌아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고결함을 줍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증합니다. 하느님은 삶의 수많은 좋거나 나쁜 시련 중에 있는 인간 여정의 진정한 동반자이십니다.** 기도가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다윗이 박해를 받고 도망쳐야 했을 때도 하느님께 대한 그의 신뢰는 굳건했으며, 아무도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이처럼 비참하게 하신다면, 이로서 그분은 당신이 하고 계신 바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고결함이 우리를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상처입은 (하느님의) 그 손이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안전한 손입니다.

Congr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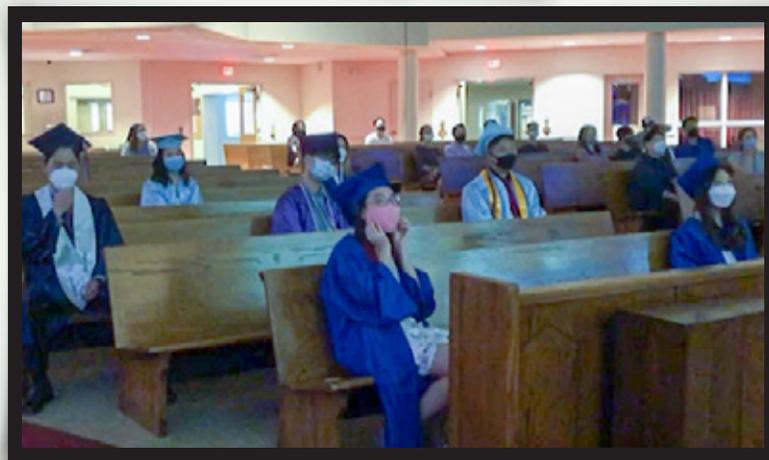
SENIOR BANQUET 2020

June 26, 2020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Caroline Hong

David Yi



Dianne Hwang



Chloe Kim



Stephen Hwang



Donna Chung



Yebin Chang



Dylan Jang



Kyounghwon Kim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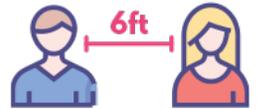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평일 미사 재개 (7월 7일부터)

- 7월 7일부터 신자들과 함께 **평일미사**를 봉헌합니다.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 (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8일(수) 오전 6:15-6:45 | 7월 1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5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하고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7월 9일(목) 오후 5:00-6:00 •특집:
- 7월 10일(금) 저녁 8:00-9:00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꺼안기 1A**
- 7월 12일(일) 오전 6:00-7:00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마재성지**